



[온라인 도자기 전시 & 온라인 도자기 퍼즐 & 온라인 나도 큐레이터] 조선의 象상 더하기

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1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<고려부터 조선까지, 우리나라 도자기 이야기>라는 주제의 온라인 전시를 개최합니다.

우리나라 도자기 문화는 고려 시대 꽃을 피워 조선 시대까지 그 명맥을 이어 갑니다. 도자기의 발상지인 중국에서도 원대 황제에게 <금채(금가루)청자>가 상납될 정도로 고려청자의 기술을 높게 평가했으며 막사발로 일컬어지는 조선 그릇이 일본의 <고려 다완(차그릇)>으로 크게 인기를 끄는 등 동아시아 도자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

기존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했던 선조들의 자세를 청자, 분청사기, 백자, 청화백자와 철화백자까지 다양한 도자기의 변천사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.

귀족의 사치품인 도자기가 서민의 일상 용기가 되기까지 변화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지만, 도자기의 변천사의 바탕에 담긴 이야기를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.

모바일로도 가능한 <도자기 전시>, <도자기 퍼즐>과 입체 도자기 전시 기획 프로그램인 <나도 큐레이터>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

최초로 제작된 <나도 큐레이터>는 3D 입체 도자기 유물 배치 및 전시, 유물 설명까지 직접 기획 전시해 봄으로써 나만의 가상 전시실을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

[도자기 전시실 바로가기 >](#)

[도자기 퍼즐 바로가기 >](#)

[‘나도 큐레이터’ 바로가기 >](#)

[만족도 조사 바로가기 >](#)

2021년 11월

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장 김희찬